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 for Middle-aged and Aged - Focused on the Leisure Program in th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홍 성 희

Dept. of Family Welfare,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Hong, Sung H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effect of the middle-aged and the aged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leisure programs of th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The sample in this study consisted of 351 middle-aged and aged living in Seoul and Daegu. Frequencies, mean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participation were age, number of the family, residence, and tuition fee. The factors had effects on the leisure satisfaction were sex, pocket money, residence, and the access of the transportation. And,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effect were educational attainment, total household income, number of the family, leisure attitude, and the access of transpor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dvertisement will be needed for more use of the leisure programs in th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And th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will help middle-aged and aged access the facilities and participate the leisure programs.

I. 문제의 제기

현대의 여가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과거에 노동보상과 행동양식으로 수단화되었던 것으로부터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개개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가 부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정당하고 질적인 여가생활이 보장되도록 국민에게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단축, 유급휴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여가의 공급체계를 확보하여 중간 및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가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나 국민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력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평균수명의 증가,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형 여가프로그램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며,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자아에 대한 관심고조 등 제반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중노년세대는 전 세대와는 달리 증가된 여가시간의 선용 및 여가능력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적 요인은 개인의 여가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프로그램의 유형 및 이용에 민감한 변화를 야기시킨다. 국민의 1인당 GNP의 증가는 여가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3차 산업의 증가는 여가관련산업의 증가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여가기회를 확대시킨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 매스미디어의 증가, 노동시간의 감소 등도 여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근무시간의 감소, 조기은퇴, 탄력적 근무제 등은 여가시간의 이용에 탄력성을 제공하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여가시설 및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또한 많은 작업과정이 자동화됨으로써 개개인은 노동에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대신 여

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며, 노동중시 윤리의 감소화와 더불어 여가중시의 가치관이 팽배해진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나라의 젊은층이 여가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연구결과(김외숙 등, 1992)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권미화, 1994)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젊은 층과 달리 중노년층은 빈곤했던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로 여가활동의 사회화 경험에 부족하여 여가를 즐길만한 방법 및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범, 1994). 한편 중노년기에는 여가에 대한 관심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므로 의무적인 노동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젊은 층의 여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노년기에 새로운 여가활동을 시작하거나 여가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여가생활을 계획하고 노년기까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노년기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청장년층을 위한 것과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가프로그램은 개개인에 의해 개발되기 어려운 한편 아직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여가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중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은 중노년층의 여가 지원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이 목적이나 지역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으므로 다른 공급주체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급주체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등의 공공시설로 제한하여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가프로그램 제공주체에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공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중노년기에 있는 개개인에게는 여가수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중노년층의 생활만족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노년기 여가의 특성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노년기 인구가 증가되며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가족주기상 막내자녀 독립후 두 부부만 남는 중노년기가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교육수준의 향상과 소득증대, 자아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오늘날의 중노년 세대는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

중년기는 여러 측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 및 자녀관계 재조정, 통합된 자아추구,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수행 등의 발달과업과 함께 증가된 여가시간의 생산적인 사용, 체력유지를 위한 운동과 사회적 활동 증진, 노년기를 위한 여가활동 개발 등 여가능력의 개발 및 여가시간의 선용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부각된다.(Havighurst, 1979). 성공적인 중년기를 보내고 위기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는 여가추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많은 노년기 인구가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핵가족화 추세로 인해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로 보내게 되었다. 여가를 선용하는 것은 노인의 역할 상실감과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며,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송정선, 1997; 홍성희, 1998)을 통해 노년기 여가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여가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갖고 있어도 여가활동능력과 기술의 부족,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여가 사회화 경험의 부족

및 비용부담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제로는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재간, 1984; 최성재, 1986; 이희범, 1994). 즉,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여가활동에 장애를 느끼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성이 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선미, 1991)를 볼 때, 노년기에 새롭게 여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개발시키거나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여가에 대한 관심을 개발시키고 사회화를 통해 여가경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년기에 추구하던 여가가 노년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의 참여도를 조사한 McGuire 등(1986)은 44세에서 50세의 집단과 51세에서 60세의 집단간에 참여도가 가장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chmitz-Scherzer 등(1983)은 60세 이상 노인인 대한 종단연구에서 독서, 산보, TV 시청 등의 활동은 10년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여행, 정원 가꾸기, 친지방문 및 초대 등은 그 빈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능력의 변화와 관심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일부의 여가활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반면 일부 유형은 유지될 수 없거나 전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가 각각 달리 개발되거나 추구되기보다는 서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중노년기의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여가는 이용자와 이용대상인 여가자원,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여가 프로그램은 공급주체, 공급목적, 제공내용 및 배경이 되는 여가자원에 따라 상이하다. 공급주체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공시설, 기업, 중

교단체, 학교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가프로그램은 어떤 공급주체가 어떠한 여가자원을 가지고 공급목적에 고려하여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는 구성원의 특정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업은 기업홍보와 이윤창출을 위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은 전국민에게 균등한 여가기회와 여가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방침에 따라 설립되어(강준렬, 1997), 복지기능의 일부로 특정인구를 대상으로 취미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의 사업분야(보건복지부, 1997)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중노년층을 위한 여가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분야는 성인 대상의 가정복지분야와 노인 대상의 노인복지분야로서, 가정복지분야의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자가 3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신경희, 1997).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노인여가의 개념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될 전망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기준(보건복지부, 1998)에 의하면, 공통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여가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활용 등 여가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다.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구민회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복합기능의 공공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즉, 구민회관은 주민의 문화의식의 향상 욕구에 부

응하여 공연, 전시, 교육, 교양, 복지 등 다양한 내용의 활동을 수용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주로 40대로 나타난(한국여성개발원, 1998) 것을 볼 때 중년층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공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중 여가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로는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대상 시설이 있다. 성인대상 시설에서는 노인대상의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주 이용자가 3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노인대상 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시설에서도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중노년기 여가의 영향요인

여가활동은 이용자의 가치 및 욕구에 의해 잠재수요가 결정되며 잠재수요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설공급, 시설에 대한 차별화 의식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참여로 연결된다. 이 중 여가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용돈 및 건강상태, 여가태도 등의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가계소득, 경제상태, 가족수, 거주지 등의 가계관련 요인, 여가시설의 위치 및 교통의 편리성, 소요시간, 수강료 등 여가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들 수 있다.

1) 성별

여가행동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남녀의 성역할 및 사회적 역할의 상이,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성별은 여가활동을 위한 개인적 능력과 표현형태의 차이를 초래한다(Murphy, 1981). Gorden 등(197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긴장 해소 및 단독활동에의 참여빈도가 높았던 반면 기분전환 및 발전적 활동의 경우 남자노인이 더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박재간(1983)의 연구에서는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학교의 경우 여자노인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한편, Maas(1975)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기성인기에 발달시킨 여가활동양식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여가성향이 다를 수 있다.

2) 연령

Cross(1981)에 의하면 연령은 여가활동참여를 예측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수인데, 연령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후기중년기 및 노년기 대상자 중에서도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여가활동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조사한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는 60대 여성의 가정지향 활동과 자기개발활동 참여율이 40대와 5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년기 이후에도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범위 및 참여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여가에 대한 태도, 과거의 여가 경험, 참여도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Wippler(1988)는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의 중요한 지표임을 지적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활동의 양과 질이 높고 형태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자기개발 및 사교·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가계총소득

소득수준은 여가수요의 경제적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적인 욕구충족에서 여가와 같은 2차적인 소비로 관심이 이동된다(김광득, 1994). 따라서, 소득은 중노년기 여가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많

은 연구(최성재, 1986; 이현숙, 1994; 송정선, 1997)에서 노인 여가활동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을 통해 소득의 중요성이 뒷받침되고 하겠다. 이는 여가활동참여도를 위해서는 참가비, 수강료, 교통비, 용돈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도 월평균소득이 높은 중노년기 기혼여성이 자기개발활동 및 사교·종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용돈

노인들의 경우 동거가족의 구성과 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용돈이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될 수 있는데, 송정선(1997)의 연구에서 노인의 용돈이 여가활동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 노인의 월평균용돈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를 통해 용돈이 여가활동참여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6) 가족수

일반적으로 가족수 또는 자녀수는 개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년기 이후에는 자녀의 독립과 가족수 감소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정신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가추구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7) 경제상태

경제상태는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생활정도에 대한 평가로서 소득이나 용돈 등의 객관적인 경제력과는 달리 주관적인 경제지표가 된다. 김순미 등(1996)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자신의 가계경제상태를 낙관적으로 인지할수록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행태에 있어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8) 건강상태

중노년기에 있어 건강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Parker(1976)는 건강상태가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고 여가참여빈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거주지역

거주지는 여가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김형식(1983), 최성재(1986)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거주노인과 도시거주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년층과 노년층의 여가참여도를 분석한 홍성희 등(2000)의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여가경험과 여가기회의 공급에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여가수요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0) 여가태도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은 여가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지식 및 신념,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여가태도는 여가참여를 유도하는데, 홍성희 등(2000)의 연구결과 노인의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참여도 및 참여 후 효과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여가참여경험

Crawford 등(1987)은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경험을 여가행동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과거에 여가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졌을 때 현재의 여가활동참여의식과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중노년층은 여가활동을 즐겼던 경험의 결여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남으로써(이희범, 1994), 과거의 여가참여경험의 결여는 여가참여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2) 수강료

수강료는 여가시설의 이용과 접근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가활동참여에 장애를 초래하는 제약요인이기도 하다. 노인의 여가에 관한 실증연구(최성재, 1986; 이선미, 1991; Perterson, 1977)에서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즉, 중노년기에는 청장년기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용부족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강료는 여가비의 일부로서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13) 위치의 적절성

시설의 위치는 물리적인 여가환경요소로서 적절한 위치는 개개인의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배성의, 1996). 반면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여가자원의 효용을 상실하게 되므로 오히려 여가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전주시 소재의 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이성희 등(1999)의 연구에서 사회복지관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시설이 좀 더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16.1%로서 세 번째로 높은 요구였던 것을 볼 때 위치의 적합성은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4) 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수단의 보급과 신속화는 여가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교통수단은 여가시설이나 여가자원への 접근성을 증가시키며, 여가활동의 광역화를 도모한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시설을 이용하고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금숙(1997)의 연구에서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로 나타나 차량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5) 소요시간

특정 지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거리 및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영향을 미친다(Simten, 1977). 소요시간은 시설의 위치, 교통수단과 함께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서 소요시간에 따라 시설에의 접근도와 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프로그램 이용 및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예측된다.

요인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참여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여가활동은 여가에 대한 가치 및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며, 동기화된 욕구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 가계특성 요인, 그리고 여가공급과 관련된 여가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참여가 결정되며, 참여한 후에는 참여를 통해 만족을 얻고 효과를 인지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공급되는 여가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초분석으로서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공급과 시설이용자의 참여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문제분석으로서 시설이용자의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심리적 변수, 여가관련 변수가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셋째, 관련변수들이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넷째, 관련변수들이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 및 공공시설에서 공급되는 여가프로그램의 유형에 기초하여 여가프로그램 문항을 작성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관련특성, 여가관련 심리적 요인, 환경적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며 공공시설에서 개설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40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을 중년기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들이 발달과업 상 청년기 및 초기 성인기와 구분되며, 여가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많은 여가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공급주체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대구광역시외의 경우 문화회관, 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공공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교양·문화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인 격차가 적다는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1999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 후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서울의 4개, 대구의 6개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직접면접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60세 미만자의 경우 직접면접과 자기기록법을 병행하여 작성한 35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C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 참여프로그램 및 희망프로그램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도와 참여효과,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1문항)	현재 참여중인 여가프로그램의 수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10문항)	현재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인지된 교육효과 및 생활상의 변화 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6문항)	현재 여가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전문성, 운영방법, 비용, 시간대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독립변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 1=여 0=남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세)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1=중졸이하 2=고졸 또는 초대졸 3=대졸이상
가계총소득	가계의 월평균총소득(원)
용돈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용돈(원)
가족수	동거가족수(명)
경제상태	지난 1년과 비교한 현재의 경제상태 1=매우 나빠졌다 3=비슷하다 5=매우 좋아졌다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은 편이다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1=서울 0=대구
심리적 변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8문항)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여가참여경험	과거 여가프로그램 참여수
환경적 변수	
소요시간	시설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의 적합성	시설위치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수단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77.2%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또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평균 연령은 54.78세, 월평균 가계총소득은 약 212만원, 월평균 용돈은 약 24

만원이었다.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2.57로서 중간점에 훨씬 못미치는데, 이는 현재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에 대한 태도는 평균 4.0점으로 여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이 현재 시설에서 참여하는 여가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1.58 강좌였으며, 이에 대한 수강료는 총 18,000원 정도이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94로서 중간점을 상회하였다. 여가시설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N=351)

범주형 변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76	22.8
	여	258	77.2
교육수준	중졸이하	102	29.1
	고졸 및 초대졸	132	37.6
	대졸이상	117	33.3
지 역	대구	214	61.0
	서울	137	39.0
연속형 변수		평 균	표준편차
연령		54.78	12.80
가계총소득(만원)		211.95	110.43
용돈(만원)		24.29	19.12
여가비(만원)		11.60	9.17
동거가족수		3.42	1.36
경제상태(1-5점)		2.57	0.80
건강상태(1-5점)		3.34	0.94
시설위치의 적합성(1-5점)		3.70	1.03
교통수단의 편리성(1-5점)		3.64	1.12
소요시간		23.50	15.50
여가태도(8-40점)		32.05	4.57
과거여가 경험		1.60	1.30
참여효과(10-50점)		37.55	6.63
프로그램 만족도(6-30점)		23.67	3.91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1.58	0.98
수강료(천원)		18.09	16.19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에 차이가 있음.

로서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5분으로 비교적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시설의 여가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및 문화회관 등에서 중노년층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표 3 참고), 구민회관 및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교실, 생활체육, 교양강좌 등이고 부분적으로 직업훈련을 위한 자격증교실, 취업준비반 등이 소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신경희(1997)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구민회관의 경우 주부들의 참여율이 높아 프로그램의 공급도 주부대상의 취미 및 여가선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사회복지관은 입지한 지역의 주민특성에 따라 비중을 두는 대상이나 프로그램의 공급이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F 종합사회복지관 및 G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여성 대상의 취미교양교육보다는 직업훈련 및 창업준비를 위한 기능교실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 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학교 또는 유사 명칭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컴퓨터, 어학 등의 교육, 건강관리와 같은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들은 주 2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강좌의 다양성이나 운영시간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그 기능이 노인의 여가 및 교육으로 강화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도 다양한 취미활동, 교육 및 교양강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의 역할 뿐 아니라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청장년기의 직업 및 사회활동의 경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들을 볼 때, 노년기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통해 그 대상연령이 차별화되어 공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노인 대상 여가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시설에서 중년층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은 성인기 초기를 위한 것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관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소수의 취미교양교육에,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의 경우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사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3) 참여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현재 시설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음악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미교실이었다(표 4

〈표 3〉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분석

시 설	지 역	대 상	강좌 유형	세부 프로그램
A 구민회관	서울	성인	교양교육교실 기능교실	취미교실, 어학강좌 미용사자격증교실, 조리사자격증교실 창업 및 취업준비반
B 구민회관	서울	성인	문화교육강좌 레크레이션강좌 I 레크레이션강좌 II 생활체육강좌	취미교실 실내스포츠 및 건강관리교실 생활음악교실 야외스포츠 및 생활체육교실
C 노인종합복지관	서울	노인	장수대학 건강대학 노인자원봉사단	취미오락, 교양,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D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성인 노인	교양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건강 강좌	건강체육교실, 컴퓨터교실 자격증대비반, 창업 및 취업준비반 노인대학, 실버컴퓨터교실, 어학교실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E 노인종합복지회관	대구	노인	노인대학 사회교육 취미동호회	취미, 오락 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교육강좌, 건강관리강좌, 법률강좌 컴퓨터, 영어, 일어, 한문, 한글 교실 사물놀이패, 산악회, 문화유적답사반
F 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성인 성인 노인	직업훈련교실 교양교실 노인대학	자격증교실, 창업 및 취업준비반 조리교실, 컴퓨터교실 등 취미교실, 교양강좌, 자원봉사활동
G 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성인 성인 노인	여성사회교육 컴퓨터 교실 평생노인복지학교	자격증교실, 취미요리 등 취미교실, 생활체육, 교양강좌
H 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성인 노인	주부취미교실 노인학교	교양강좌, 취미교실 취미교실, 생활체육, 건강관리강좌
I 문화전당	대구	성인	취미교실 스포츠교실	취미, 어학, 건강관리강좌 생활체육강좌
J 문화회관	대구	성인	취미교실 기술교실	취미교실, 컴퓨터, 어학 강좌 직업훈련 교실

참고) 이는 대상자 중 노인들이 많아 시간소일적이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체육, 미술,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고르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중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상 건강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의생활 관련으로, 의생활의 사회화로 인해 옷이나 홈패션용품을 만드는데 관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미나 교양강좌가 아닌 자격증 및 창업과 관

련된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노년층들이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가계관련변수 중 가족수와 거주지역, 그리고 여가환경변수 중 수강료가 유의적인

<표 4> 참여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명	참여도	
	빈도	%
생활체육(에어로빅, 수영, 스포츠댄스, 당구 등)	76	13.66
미술(서예, 사군자, 서양화, 도예 등)	75	13.49
음악(가요, 민요,	101	18.17
건강(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등)	69	12.41
의생활(자수, 홈패션)	5	0.90
식생활(취미요리, 제과제빵)	38	6.83
자녀교육 및 봉사(구연동화, 독서지도, 자원봉사)	9	1.62
어학 및 컴퓨터(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	53	9.53
취미교실(수공예, 메이크업교양강좌, 바둑, 장기 등)	97	17.45
자격증반(조리사자격증, 도배자격증 등), 꽃집경영반	33	5.94
계	556	100.0

* 누적빈도를 적용함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표 5 참고). 즉, 중노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연령이 많을수록 일상적으로 가정 내에서나 외부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에 참여도가 적었던 송정선(1997), 홍성희(1998)의 연구결과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가정 내에서 소일하는 여가활동과 그 유형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성인기와는 달리 가족원이 가사노동과 가정 내 역할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기혼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공공시설에서 시간을 소일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더 많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업체, 사설학원, 학교 등의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배성의(1996)의 연구에서도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지

<표 5>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N=351)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P.E.	S.E.
성별(남)		0.190	0.087
연령		0.038	0.481***
교육수준(대졸이상)			
중졸 이하		0.285	0.119
고졸 및 초대졸		0.084	0.043
가계총소득		-0.001	-0.107
월평균용돈		0.003	0.052
동거가족수		0.108	0.149*
경제상태		-0.025	-0.019
건강상태		0.050	0.047
거주지역(대구)		0.840	0.321***
시설위치의 적합성		-0.018	-0.019
교통수단의 편리성		-0.043	-0.048
소요시간		0.002	0.031
여가 태도		0.020	0.089
과거여가경험		0.004	0.006
수강료		0.029	0.464**
상수		2.180	0.721
R ² (Adj-R ²)		.332(.286)	
F value		7.215***	

* p<.05 **p<.01 ***p<.001

역 거주자의 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사회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의 지역간 격차로 인한 결과로 해석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관련변수 중에서는 수강료가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해야하는 여가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공공시설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하고, 특정 시설의 경우 수강료가 무료이거나 수강강좌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개인이 저가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노년층이 현재 공공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참여자의 성별과 월평균용돈, 거주지역,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참여중인 여가프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용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여가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 이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는 용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김광득(1994)의 연구결과나 가계의 여가비지출과 부부의 여가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여가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순미 등(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구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공공시설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자들의 태도 및 기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중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편리하다고 생각할수록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적절한 교통수단의 확보가 여가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프로그램의 참여효과에는 교육수준과 가계총소득, 가족수,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여가태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즉, 교육수준이 대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인 집단이, 또 대졸집단에 비해 고졸 또는 전문대졸인 집단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여가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대상 시설의 프로그램이 취미오락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의 지적 욕구나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표 6>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N=351)

독립변수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P.E.	S.E.
성별(남)	1.65	0.195 *
연령	-0.058	-0.196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0.947	0.102
고졸 및 초대졸	-0.204	-0.027
가계총소득	-0.003	-0.081
월평균용돈	0.030	0.167 *
동거가족수	0.223	0.079
경제상태	0.352	0.070
건강상태	0.315	0.076
지역(대구)	-2.325	-0.300***
시설위치의 적합성	0.325	0.089
교통수단의 편리성	0.761	0.219 **
소요시간	0.004	0.015
여가 태도	0.008	0.009
과거여가경험	0.063	0.021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0.057	0.014
수강료	-0.022	-0.091
상수	19.180	0.000
R ² (Adj-R ²)	.155(.093)	
F value	2.503***	

* p<.05 **p<.01 ***p<.001

<표 7>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대한 중회귀분석 (N=351)

독립변수	참여효과	
	P.E.	S.E.
성별(남)	-0.533	-0.035
연령	0.015	0.028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4.807	0.289***
고졸 및 초대졸	3.464	0.259***
가계총소득	-0.015	-0.257**
월평균용돈	0.038	0.108
동거가족수	0.955	0.189**
경제상태	0.305	0.033
건강상태	0.436	0.059
지역(대구)	-0.397	-0.028
시설위치의 적합성	-0.330	-0.050
교통수단의 편의성	0.877	0.141*
소요시간	0.025	0.060
여가 태도	0.272	0.177**
과거여가경험	0.266	0.049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0.830	0.118
수강료	-0.025	-0.057
상수	19.268	0.000
R ² (Adj-R ²)	.246(.191)	
F value	4.441***	

* p<.05 **p<.01 ***p<.001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의 총소득이 여가참여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이 비용에 제약 받는 저소득층의 욕구에는 부응하나, 여가비용의 다소보다는 질적이고 선택적인 여가참여를 원하는 계층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 효과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참여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중년기 이후로서 동거가족원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여가활동을 지원해주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노년층이 신체적인 노화현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가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을수록 여가참여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여가참여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여가태도에 달려있다고 하여 여가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한 김광득(1994)의 견해를 뒷받침하며, 홍성희 등(1997)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갖는 집단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던 결과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과 참여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가활동의 효과와 만족도를 인지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한편 여가활동의 대상자 중 중년기 이후의 개인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달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여가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계특성, 여가환경 등의 요인이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및 참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첫째,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은 취미 오락지향형이나 교양강좌가 주를 이룬다. 시설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취업훈련을 위한 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나, 노인복지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나 동호회활동 등 주체적인 활동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여가프로그램들은 공공시설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년기는 성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거나 여가요구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참여프로그램으로는 음악관련프로그램, 취미교실, 생활체육 및 건강강좌 등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 시간소비형 및 단순 취미형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중노년층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노년층의 공공시설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가족수, 거주지역, 수강료 등이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관련 특성, 여가환경적 특성 등이 모두 관련된 반면 심리적 요인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월평균용돈, 거주지역, 그리고 교통수단의 편리성이었다. 용돈은 참여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용돈의 정도가 객관적인 참여도보다는 주관적인 여가만족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프로그램 참여효과에는 교육수준, 가계총소득 및 가족수, 여가태도,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영향을 미쳤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중노년층이 참여효과를 더 부정적으로 인지한 결과를 통해 단순시간 소비형이나 취미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준을 달리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됨으로써 여가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참여효과를 인지하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와 같이 참여효과에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신체능력과 교통수단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노년층을 위해 교통수단의 제공은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여가프로그램들은 시설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전문성과 특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은 필수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지역성이 무시되거나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설립되며,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의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복지관 내에서 내용을 다양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근 복지관이나 다른 유형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관계망을 형성하고 각 복지관에 따라 소수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전문화시키며 타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강좌의 경우 모든 복지관이 기기와 전문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설비가 갖추어진 타시설에 위탁교육시키거나, 취미교실의 경우도 복지관에 따라 차별화시켜 어떤 복지관에서는 전통문화관련 취미교실을, 인근의 다른 복지관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취미교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여가프로그램들이 취미오락형이나 단순학습지향형으로 제공되는 결과 매우 단기적이다. 그러나 중노년기의 충분한 여가시간과 여가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단기성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장기화 방안으로는 학습, 직업훈련 강좌의 경우 난이도와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단순취미오락형의 경우 프로그램 수강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취미활동을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중 중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년층의 생활주기를 고려할 때 자녀독립과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교양강좌나 노년기를 대비한 생활설계의 일환으로서 중년층의 여가능력을 개발하고 여가경험을 사회화시켜 노인기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한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의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서로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사업이나 가정복지사업과 연계시켜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시설의 설립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 프로그램의 차이보다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설립연도에 따른 주민들의 인지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인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는데, 건강하고 기동성이 있는 청장년층에 비해 중노년층은 교통수단의 조달능력이 떨어지고, 적절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위치가 대중교통수단이 잘 연결되는 곳에 계획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강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시설인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여가프로그램 중에는 중년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강자들도 일부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어 중년기에 속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고르게 표집하지 못했으므로 중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을 비교 분석한다

면 각각의 연령층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이 더 잘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층이 여가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중년층의 참여프로그램과 희망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이들의 발달특성과 여가욕구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이 추천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노년 개개인에게 여가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각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년과 노년의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그리고 선호 프로그램을 감안한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설립과 운영시 지역성과 주민특성을 고려하며 공공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강준렬(199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 서울: 도서출판 동인.
- 2) 권미화(1994) 미혼 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 - 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제기획원(1989) 한국의 사회지표.
- 3)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 4)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 5) 김순미·홍성희(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21-136.
- 6) 김외숙·이기춘(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 지각과 여가활동참여도와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08-218.
- 7) 김홍록(1994) 노인을 위한 여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8) 박재간 등 (1984)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9) 보건복지부(1997)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

- 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 10) 보건사회부(1998) 노인복지사업지침.
- 11) 배성의(1996) 한국성인의 사회교육 참여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2)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신경희(1997) 잠재적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4)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사회복지관 효율성 연구: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16) 이정우·이윤미(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1-18.
- 17) 이현숙(1994) 노인의 여가활동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이희범(1994) 노인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논총 26집.
- 19)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권.
- 20) 최금숙(1997)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1) 한국여성개발원(1998) 지역사회여성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22) 홍성희·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 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23) 홍성희 (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107-123.

- 24) 홍성희 · 김성희(2000)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이용실태 분석-중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97-114.
- 25) Crawford, D.W.,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9, 119-127.
- 26) Cross, K. P.(1981) Adults as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27) Freysinger, V.,(1995) The Dialectics of Leisure and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in Mid-life: An Interpretive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61-84.
- 28) Freysinger, V. & R.O. Ray(1994) The Activity Involvement of Women and Men in Young and Middle Adulthood: A Panel Study. *Leisure Studies*(16), 193-217.
- 29) Gorden, C., Gaitz, C.M. and Scott, J.(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ited by R.H.B in stock and E.Shanas(New York: D. Ban Nostrand).
- 30) Havighurst, R.G.(1976). "Aging in America: Implication for Educ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 31) MacGuire, F.A.(1982) Leisure Time, Activities, and meaning: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Later Life. NY: Praeger.
- 32) Mass, H.S., & Kuypers, J.A.(1975) From thirty to senventy, San Francisco: Jossey-Bass.
- 33) Murphy, J. F. (1981) *Concepts of Leisur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34) Parke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y Allen and Unwin Russel, A. Ward and Susan, R. Serman(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 of Gerontology* 39(1), 83-101.
- 35) Peterson, C. A.(1977), *Theraphy and Leisure Education*, Parks and Recreation 36. Sneegas, J. J.(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lled and Later Life Adults :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J. of Leisure Research* 18(4), 248-258.
- 37) Schmitz-Scherzer, R. & Thomae, H.(1983) *Constancy and Change of Behavior in Old Ag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Y: W.W. Norton.
- 38) Simten, J., (1977) 'The Demand for Recreation and Tourism in Australia' in Mercer D., ed., *leisure and recreation in Australia*, Sorrett Publishing Co.
- 39) Wippler, R.,(1968) *Social Determinants of Leisure Behavior*. Assen: Van Gorcum.l